

전주시-프랑스 문화교류 확대 논의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 전주방문 박순중 부시장 면담...전주-한불 상공회의소 업무협약 체결

주한 프랑스 대사가 전주시와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파비앙 페논(H.E. Fabien PENONE) 대사와 알랭 베르데르 경제 참사관, 마리아 샹피에르 공보관 등 주한 프랑스 대사관 일행 6명이 교류 협력분야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주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는 이날 전주에 위치한 프랑스문화원과 전북대학교를 방문하고, 전주시청을 방문해 박순중 부시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순중 부시장은 "프랑스와

의 최근 김승수 전주시장이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를 찾아 업무추진관련 의향서에 서명하고, 지난해와 올해 전주한지를 이용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문화재를 복원하고 전주한지 다품이 인형으로 제작된 의류장각 의계가 파리에서 전시되는 등 꾸준한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프랑스 내 전주시 홍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파비앙 페논 대사는 "문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류확대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는 유럽의 문화중심지로 손꼽히는 프랑스와 활발한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2015년 베르사유시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지난해에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전주 프랑스워크'를 추진, 시민들에게 프랑스의 고품격 문화를 선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프랑스와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교류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의 복합소재 최대 네트워크인 JEC그룹의 프레드리 뒤텔 CEO는 전주의 명예시민이기도 하다.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유럽에서도 특히 쿠파가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가 전주를 주목한 것은 바로 전주가 지닌 문화적인 가치 때문"이라며 "프랑스에서 인정받은 문화는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대사관은 금번 방문으로 전주 상공회의소-한불상공회의소간 업무협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광민 기자

'포항 5.4 지진' 전북도 흔들렸다

도내 전역에서 진동 감지... 관련 신고 200여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가 전북지역까지 미치고 있다. 15일 전북도와 전주시상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9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전북 전역에서 진동을 감지한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진동을 느낀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정수기와 집안 물건이 흔들렸다. 이거 지진 아니냐', '사무실 집기가 흔들려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니 불안하다'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날 현재까지 소방본부에 신고된 지진 관련 신고는 200건에

달한다.

그러나 다량히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자 전북도는 즉각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도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협업부서와 상황판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비상상황 유지, 공무원 출장 자제, 도내 14개 시군 비상근무 체제 철저 등의 지시가 내려졌다.

도는 지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조사와 함께 여진을 대비한 홍보 문자 등을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겨울철 제설대책 상황점검·장비 시연회 개최

전주시가 철저한 제설대책으로 안전한 도로 만들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폭설 시에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시는 15일 덕진구 만성택지개발지구 내 개설도로(만성북로)에서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33개동 제설 담당 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2018년 제설대책 상황점검 및 제설장비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회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이날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되는 설해대비 상황관리 체계에 대해 점검하고, 제설 담당 공무원들이 각종 제설장비의 작동요령을 익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시가 확보하고 있는 대형살포기와 소형살포기, 트랙터착용·트랙터장착용 전동삽날(제설기), 살수차 등 제설차량별 특성과 운전 조작 요령, 제설작업 노하우 등을 익혔다. 또, 열화칼슘 살포 등을 직접 시연했다.

또한, 좁은 골목길과 이면도로를 제설하는 용도로 쓰이는 소형살포기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동료들에게 직접 더블캡에 장착하는 방법과 작업요령, 주의사항 등 운전 노하우를 전파했다.

시는 이날 제설작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내 집 앞 눈은 내 손으로'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시는 또 폭설이 내릴 경우 시외곽 지역 마을진입로 등 취약지역의 주민 동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트랙터를 활용한 시민제설단도 운영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와 진북동은 주민수립 마을계획 확정을 위한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에게 마을이야기를 들려줄 마을해설사를 발굴하는 '진북 이야기술사' 등 15개 마을의제를 심의했다.

진북동, 이야기술사(마을해설사) 발굴 나선다

주민수립 마을계획 확정 위한 마을총회 개최... 15개 마을의제 심의

전주시 진북동 주민들이 아동·청소년에게 마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을해설사가 된다.

전주시와 진북동 마을계획추진단,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15일 진북초등학교 강당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수립 마을계획 확정을 위한 진북동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에게 마을이야기를 들려줄 마을해설사를 발굴하는 '진북 이야기술사' 등 15개 마을의제를 심의했다.

마을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조사한 후 의제를 발굴·연구한 후 도출해낸 마을계획안에 대해 분과별

사업제안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결정하여 마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진북 이야기술사 △재능기부부 통해 배우는 수공예 △반찬 품앗이 △진북공방 △간선천 주변환경 정비 △작은 북육탕 등 진북동의 특성이 잘 반영된 사업들이다.

먼저, 진북동 주민들은 마을의 역사와 소소한 이가기를 문화콘텐츠로 제작해 활용하기 위해 이야기술사 발굴단을 모집하고, 발굴된 이야기술사는 진북동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찾아가 마을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진북 이야기술사' 사업을 제안했다.

주민들은 또 어은골과 도토리골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작은 북육탕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반찬 품앗이', '진북동 마을활성화 센터' 조성 등의 안건도 다뤘다.

주민들이 발굴하는 마을계획은 마을계획추진단 구성과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자원수요조사, 마을의제 발굴 및 연구, 주민총회의 과정을 거쳐 최종 수립되며, 마을계획 실행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서 경찰관 승용차 교통사고 사망

전주시 중화산동 종로약국 앞에서 지난 14일 오후 11시28분경 경찰관 A(43)경사가 승용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경사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를 크

게 다쳐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B(26)씨가 A경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군산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20일~12월 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5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오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의 경찰력을 동원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낚시 배에서 술을 마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할중알코올농도 0.03%로 술 한두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서부신시가지 공영주차장 주변 주행유도선·LED광고판 설치

전주시 완산구는 서부신시가지 불법주차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안내를 위한 주행유도선 및 LED광고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서부신시가지의 대표적인 공영주차장인 2개소(홍산, 비보이) 주변에 주행유도선 400m와 LED광고판 4개의 교통편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가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행유도선은 교차로 진입 30m 이전부터 차로 가운데 폭 50cm의 하늘색 선을 그려 서부신시가지지를 처음 방문하는 외부인이나 전주시민에게 운전자가 보다 쉽고 안전하게 공영주차장을 찾아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LED광고판을 4개소에 설치하여 야간에도 주차장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전자를 도와주는 기능을 특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